

건협, 제 20대 회장에 이순형 박사 취임



한국건강관리협회 제20대 회장에 이순형 부회(서울의대 명예교수, 의학박사)이 선임되었다. 건협은 전임 김상인 회장의 사임에 따라 '2005년 1월 21일(금)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순형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건협은 지난 24일(월) 이순형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현식적으로 일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 40년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여 앞으로 더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순형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대 교수를 거쳐 서울의대교장, 의학교육연수원장, 대한기생충학회장,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과 우리 나라 기생충학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4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을 맡아 왔다. 이 회장은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 나라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중앙검진센터, 중랑구청장 표창장 받아

중앙검진센터는 지난 2004년 제2회 중랑한마당 건강증진제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중랑구청장(문병권) 표창장을 받았다.

또 박정 소장과 정희상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절주 캠페인 및 무료검진 등으로 구민 건강생활에 기여한 공으로 동대문구청장(홍사립) 감사장을 받았다.

건협, 쓰나미재난 의료지원 봉사 참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 김해룡 책임연구원(소장대행)은 지난 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재난 피해 지역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지원

봉사에 참여하였다.

김해룡 책임연구원은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의료지원단(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의 팀장으로 파견되어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강원지부, 지부 발전을 위한 직원 포럼 개최

강원지부는 지난 1월 17일 강원지부 발전을 위한 직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김학환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기타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대구지부, 신년 맞이 금연클리닉 운영



대구지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년맞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연에 대한 정보 제공, CO 측정, 금연 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였다.

건협 정우희, 연말연시 불우이웃 위문



건협 직원의 친목 모임인 정우회는 지난 1월 8~9일 2일간 광주·전남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김희태 정우회 회장 및 회원들이 지난 1월 13일 참사랑소망원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하는 등 불우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 ☺